



밀알&세계

07 2017 | Vol.299

MILAL & WORLD

■ 칼럼

단장의 마음

나는 장애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일반인들과 어울려 교육(통합교육)을 받았다. 그러기에 나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별로 없었다. 친구들도 나를 평범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도 있었고 타고난 성격자체가 어디서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입장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 ‘오로지 장애인선교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LA로 이민을 왔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유독 한인들이 많아서인지 장애인선교기관도 많았다. 이영선 목사님을 만나며 밀알선교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 밀알선교단 모임에 나가며 낯설게 느낀 호칭이 '단장'이었다. 대뜸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연상되었다. '선교단'이니 '단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목사님'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단장' 소리가 불현 듯 듣고 싶어졌다. 그러다가 드디어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단장이 되었다. 이제 그 햇수가 15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설교를 하러 교회에 가면 정작 목사님들은 나를 단장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밀알선교회 회장님'이라고 한다.

단장은 교회를 섬기는 주일목회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초청받아 설교를 마치고나면 성도들은 “목사님,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라고 물어온다. “우리 애들을 목사님 교회에 보내고 싶네요.”라고까지 한다. 난감하다. 설교초청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일에는 평소 후원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 나는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웬만한 교회 강단에는 다 서보았다. 따라서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 어쩌다 불시에 방문하면 담임목사님들이 당황한다. 어떤 교회는 광고시간에 “이재철 목사님이 암행어사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소개를 한다. 해서 축도 부탁을 받고 속으로 “암행어사 출도요!”하며 강단에 오른 적도 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안 하니 너무 좋겠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목사가 매주 설 강단이 없는 것처럼 초라한 상황은 없다. 왜? 목사는 설교를 해야 영(靈)이 살기 때문이다. 밀알 단장들은 허리가 성한 분이 없다. 휠체어 장애인들을 차에 올리고 내리다가 허리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장애

인들은 희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도와주면 도움 받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다. 열 번을 잘해 주다가 한번 섭섭한 일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형제처럼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그때에 장애인들은 단장에게 이렇게 물어온다 “단장님에 내 맘을 아세요?” 알 턱이 없지? 장애인들의 아픔을 어떻게 알까? 밀알선교단은 오로지 한인들이 보내오는 Donation으로 움직인다. 사람들은 밀알선교단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니까 재정이나 인적자원이 풍족한 줄 안다. 본부에서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줄 안다. 아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특히 동포들의 현금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한다. 어떤 분은 “왜 정부에서 ‘Grant’를 받지 그러냐?”고 다그친다. 그게 그리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에서 종교성을 유지하며 단체를 이끄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그래서 매년 밀알의밤을 열고 뛰어야 한다. 입장권을 판매하고 광고후원을 받고 뛰고 또 뛰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할 재정이 확보가 안 된다. 따라서 단장은 ‘엔터테이너’가 되어야만 한다. 지역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한다. 친하다고 밀알을 후원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반 목회를 했다. 한국 교인들은 담임목사 생일을 확실히 챙겨준다. 명절이 되고 연말이 되면 성도들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밀알사역을 하고부터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는 일단 접었다. 아니 장애인들로부터 불평을 안 들으면 다행이다.

작년 평생을 밀알사역을 감당해온 선배 단장님이 퇴임하셨다. 퇴직금 제로, 노후보장 제로. 그렇게 그는 첫 은퇴단장이 되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단장들이 항상 ‘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나이가 들어가는 장애인들이다. 그토록 결혼을 원하건만 현실은 냉혹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는 배필임을 알기에 단장들은 미안한 것 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건넨다. “목사님, 참 힘든 일 하시네요?” 아니



표지사진:

6월 10일, 뉴저지밀알에서 '제1회 밀알과 함께 걷기, 달리기' 대회가 열려 25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달리며 친교를 나눴다. 봉사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차례

- 02. 칼럼
단장의 마음
- 04. 섬김의 기쁨
밀알과 함께하여 행복합니다
- 06. 제3회 꿈나무 큰잔치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
- 08. 아름다운 섬김
변함없는 헌신이 주는 놀라움 '신희숙, 죄지희 집사님'
- 10. 텍사스밀알 단기선교 감상문
밀알 장애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 12. 함께하는 즐거움
뉴저지밀알 마라톤대회
- 14. 행복한 시간
북가주밀알의 가족들이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16. 봉사자 소감문
사랑으로 걷는 삶, 밀알을 통해 받은 선물
- 17. 신앙묵상
'귀신 들렸다'는 것의 의미

밀알&세계

뉴욕 · 코네티컷 · 뉴저지 · 필라델피아 · 캐나다 통합판


통권 제299호 | 2017년 7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강원호, 정택정

지역별 구독문의
뉴욕: 718-445-4442 | 코네티컷: 203-733-0156
뉴저지: 201-530-0355 | 필라델피아: 267-475-8637
캐나다: 416-491-0002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 결코 힘들지 않다. 행복하다. 그게 은혜인 것 같다. 일반목회의 경험이 있는 나는 밀알사역을 하면서 깊이 깨닫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다.'는 것이다.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오로지 장애인들을 가슴으로 사랑하기에 단장들은 오늘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밀알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단장들만이 누리는 그 설렘, 행복감, 가슴 벅참,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연민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장만의 신비한 비밀이다. 



글 | 이재철 목사 (필라델피아밀알, 단장)

■ 섬김의 기쁨

밀알과 함께하여 행복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달 특집 기사는 매주 뉴욕밀알 사랑의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신민지 군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밀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표현하면서 지난 5월 27일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밀알 사역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깨달은 것들을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밀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장애인 사역에 별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In2교회 청년부를 다니면서 밀알 봉사를 다니는 사람들을 몇몇 만났고, 가끔 오지 않겠냐는 권유도 받곤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곤 했습니다. 언제고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가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는 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헌신하지 못하면 여유가 있을 때도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밀알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같은 순모임에 속한 형님 한 분이 초청하면서 조금은 충동적으로 밀알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불임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지라 장애인 친구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활발한 밀알 친구들의 환대와 전도사님, 집사님 부부, 그리고 동료 봉사자들의 따뜻한 도움 덕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봉사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저에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배울 것투성이입니다. 무조건 잘 해주고 위해주면 되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꼭 밀알 친구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

부터 배웠습니다.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해주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게 진정으로 밀알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각 친구들마다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나치게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말 한 마디 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순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화를 잘 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랜 기간 봉사해온 동료 봉사자들이 일러준 여러 팁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밀알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의 수도 늘어난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느끼던 중, 5월 27일 밀알 자원봉사자 교육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게는 매우 유용하면서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밀알 봉사를 나간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밀알 친구들 이름도 다 모르고 있었는데, 교육시간을 통해 밀알 친구들의 이름과 나이, 성격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돕는 것이 밀알 친구들을 위한 것인지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별 생각 없이 해왔던 행동이나 말들이 잘못됐던 것임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밀알 친구들이 앓고 있는 장애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 그들을 좀 더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역의 성경적 의미와 선교적 사명을 새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밀알 첫 날, 전도사님은 밀알이 단순한 봉사 단체가 아닌 선교단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밀알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믿고, 전도사님이 믿고, 봉사자들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명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봉사활동에 익숙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봉사자로 섬기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교육시간을 통해 정말 많은 지식과 새로운 사실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다양한 장애가 있는지, 또 묵묵히 그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

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말입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 몸부림. 우린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닦아줄 수도 없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와 능력으로 어떤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밀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알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밀알에 있게 하셨고, 저를 비롯한 동료 봉사자들을 사랑하셔서 밀알로 초대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드리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밀알의 사명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또한 믿습니다. 그때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글 | 신민지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 제3회 꿈나무 큰잔치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

필라델피아에는 주일마다 장애아동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랑부'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동들은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의 인도로 별도의 특별한 예배 &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재필 밝은 마음 상담실'에서는 '자폐 아동'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정기모임을 가지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선교단'에서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달장애아동들을 Day Care하는 <토요 사랑의교실>을 운영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세 번째로 '꿈나무 큰잔치(Special Needs Kids Family Picnic)'를 열었습니다. 5월 13일(토) 오전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 체육관으로 아동들과 가족, 봉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아는 대로, 모르는 친구들은 웃음으로 인사하며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행사에는 27 가정과 46명의 봉사자들을 포함하여 총 170명이 자리를 함께해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교회와 세대, 서로의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명찰을 붙여주고 안내해 주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귀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학교공부에 혹은 직장생활을 하느라 피곤할 만도 하지 만 토요일마다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유스그룹 친구들의 모습은 늘름하기 지극했습니다. 또한 주일마다 '사랑부'에서 보채는 아동들을 돌보는 모습이 천사와 같습니다. <서재필 밝은 마음 상담실> '임세라 실장님'의 사회로 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서재필재단 '최현태 회장님', 그리고 각 교회 대표, 단체장들이 환영사를 하는 것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영생장로교회 '백운영 목사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단장 이재철 목사님은 밀알선교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장애를 가진 제가 어린 시절에는 장애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즐겁게 뛰어놀지만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 '이장원 전도사님'(한인연합교회), '강소진 사모님'(안디옥교회), 이무상 목사님(영생장로교회), 그리고 '오로라 노인복지원'을 이끄시는 '샤론 황'님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준비한 정성이 듬뿍 담긴 푸짐한 식사를 하며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아동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각종 게임과 놀이를 즐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동들을 1:1로 보살피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동안 <학부모 모임>이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인사를 나누고 각 지역카운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알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부모모임에는 행동치료 전문가 '김숙희 박사님'과 정신의학자 '김지은 박사님', 몽고메리 카운티 코디네이터인 '앤 김'이 함께하며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답지한 후원금이 \$4,455였으며, H-Mart에서 쌀 15포를 기증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서 밀알선교단을 섬기는 '임현정 전도사님'의 가정에서 1등을 뽑아 대형TV를 받아가셨습니다.

서로가 다른 위치에서 사역을 하지만 주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장애인 사역을 펼치는 교회와 단체, 특별히 밀알선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영생장로교회'와 당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

글 | 필라델피아밀알 편집부





■ 아름다운 섬김

변함없는 헌신이 주는 놀라움 '신희숙, 죄지희 집사님'

한국 신문에 심심치 않게 실리는 연예인 관련 기사 중에 숨겨진 미담을 소개하는 글들이 있다. '누가 몇 년째 어느 기관을 아무도 모르게 후원해오고 있었다.' '누가 오랫동안 조용히 봉사활동을 해왔다...' 등등의 기사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 훈훈한 미담 기사를 보면서 "그럼 이 글을 쓴 기자는 어떻게 알고 썼을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해 온 게 맞을까?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이 아닐까?"라

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끝까지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만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선한 헌신을 하고 계신 어느 분들의 숨은 미담을 꺼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졌기 때문이

다. 앞으로 연예인 미담 기사를 보며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으며 워싱턴밀알의 숨은 미담의 주인공들을 소개해볼까 한다. 그분들은 바로 볼티모어 성인에 배에 매월 첫째 주 저녁식사 친교를 후원해주시는 신희숙 집사님과 최지희 집사님이다.

내가 처음 볼티모어 예배에 찬양인도로 참여했던 2010년 어느 날 “오늘은 예배 끝나고 한중관에서 친교합니다.”라는 광고를 듣고 찬찬 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한국에서 온 지 1년 정도 되어가던 때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주 시켜먹던 자장면을 1년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장면 곱빼기를 시켜서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정일분 사모님께서 “집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매달 한 번씩 볼티모어 밀알예배 때 한중관에서 저녁을 사주고 계시다.”고 알려주셨다. 조금 있으면 오실 거라고 하셔서 도대체 누굴까 싶은 마음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았다.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식사대접을 그것도 매달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외모에서부터 부유한 사모님의 모습에, 딱 봐도 권사님이시구나 할 정도의 그런 넉넉함이 느껴지는 분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오신 두 분 집사님은 너무나도 수수한 그냥 우리 옆집 아주머니의 모습이셨다.

두 분 가정이 경제적으로 넘치는 부유함을 누리시는 분들이 아니셨다. 열심히 일하셔서 착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시다. 이미 수년전부터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후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섬김은 한 번도 빠지거나 거르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음식 값이 오르고 집회참석자도 많아져서 비용이 부담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밀알선교단에서 좀 더 저렴한 식당을 찾아봐야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도 밀알의 행사 때마다, 캠프 때마다 특별후원까지 해주고 계시는 이 두 분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장애인들을 위해, 신문 한 귀퉁이에 기사 한 번 실리지도 않는 이 일에, 누구도 박수쳐주고 대단하다고 격려조차 해주지 않는 이런 일에 신희숙, 최지희 집사님은 십년이 넘게 변함없이 헌신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어떻

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도 여전히 매월 첫째 주 볼티모어 월요집회를 마치면 우리는 한중관으로 가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중국음식을 먹고 있다. 우리 밀알 장애인들은 유난히 한 달에 한번 중화요리로 외식하는 날이면 모두들 들뜬다. 특히 우리 제시카 자매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면 오늘 자장면 먹으러 가냐고 몇 번이고 확인전화를 걸어온다. 두 분 집사님은 이렇게 좋아하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행여나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기에 때로는 힘들어도 이 헌신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하신다.

예배 광고시간에 나는 이렇게 광고를 했다. “나는 이 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맘을 넘어서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한결 같이 이 큰 헌신을 해 오실 수 있을까? 내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애인을 사랑하는 맘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고모가 집에 놀러 와서 함께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었던 적이 있다. 나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면서 “우리 고모가 자장면 사줬다”고 자랑했다. 사실 나는 돈이 없어서 자장면을 못 먹었던 세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자장면을 먹었다는 거보다 고모가 사줬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는 볼티모어 월요집회 때 자장면을 먹는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다. 신희숙, 최지희 두 분 집사님이 십년이 넘게 달마다 우리 밀알의 장애인들에게 자장면을 사주신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몰라줘도 두 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

“신희숙 집사님, 최지희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글 | 장재원 목사 (워싱턴밀알, 총무)

밀알 장애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많은 설렘으로 시작했던 이번 선교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기쁨 속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이후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 때문에 선교 전날엔 밤을 새다시피 했고, 선교 기간 내내 평소보다 훨씬 적게 잠을 잤지만 신기하게도 여정 내내 많은 피곤함 없이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하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은혜롭게도 매일매일 체력을 채워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선교를 가기 전 선교에 대한 제 마음과 목적은 분명치 못했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지라는 분명한 마음가짐 보다는, 아직 많은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떠돌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하나님은 선교를 가기 전부터 이 선교표어를 저희에게 주셔서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저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고, 오히려 선교에 대한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회 안에서의 약자, 소외받는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으셨고, 특별히 이번 선교에 관련해서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그 사회 속에서의 작은 자라 일컬으셨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결코 저희보다 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은 노력을 통해서야 가질 수 있었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을 저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판단하는 마음속에는 겸손치 못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 제 마음은 뚜렷한 계획과 목표의식보다는 제 내면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다른 인식들의 갈등에 더욱 집중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쾌한 선교팀원들과 댈러스에 가는 길은 복잡했던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었습니다. 즐거운 찬양과 집사님들이 챙겨주신 간식들과 팀원들의 많은 웃음은 밴 안에서의 교제를 너무나도 즐겁게 해주었고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선교사역은 델러스 도착 다음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텍사스밀알 단장님과 부단장님께서 그 날 저희가 해야 할 그룹홈 청소와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저희 그 일들을 역할분담을 하여 하나하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단장님과 부단장님은 평소에도 이미 장애인분들을 온 마음 다해 섬기시고 있기에 그 날 하루는 쉬시고 저희에게 모든 걸 맡기실 거라 생각했는데, 사역 내내 옆에서 일을 도와주시고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단장님들 본인들의 사역에 대한 책임의식과 겸손하신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을 통해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온전한 마음이 그 날 사역 내내 전해졌고 그 마음을 양분삼아 더욱 힘 있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웠지만 고단했던 첫날의 육체 사역을 끝마친 후, 둘째 날엔 드디어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졌던 일은 달라스한인교회에서 밀알의 장애인 친구들이 직접 만든 커피 빈과 관련된 상품들을 교인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도 커피 서빙을 도우며 펀드레이징을 함께 하였고, 제가 특별히 맡았던 일은 장애인 친구들이 커피를 잘 따를 수 있게 옆에서 계속 지켜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은 참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해내었고 그 모습을 통해 순종의 의미를, 성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장시간동안 따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도, 가끔 뜨거운 커피를 본인의 손에 쏟으면서까지 해야 했던 일인데도, 단 한 번의 힘든 내색 하지 않은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투명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며 같이 대화를 할 때마다 제 마음도 정화가 되었고 너무나도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날은 금방 찾아왔고, 마지막으로 저희 밀알 센터 청소와 굿커피 공장 청소 및 정리를 맡아 했습니다. 센터 청소는 밀알 부단장님의 계획된 지시와 분명한 역할분담으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었고 아무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기에 많은 어려움 없이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들은 서로에 대한 의지와 팀원들 한명 한명의 성실함으로 커버가 되는 듯 했고, 결과적으로는 꽤나 많았던 일들을 많은 지침 없이 즐겁게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된 교제 속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즐거운 사역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

글 | 전하민 (텍사스밀알, 휴스턴 한빛장로교회 드림청년부)





■ 함께하는 즐거움

뉴저지밀알 마라톤대회

6월 10일(토) 화창한 초여름 날, ‘제1회 밀알과 함께 걷기, 달리기’ 대회가 뉴오버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250여 명이 한데 모여 초여름의 따사로운 햇살이 선물한 아름다운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Milal Seeds’라는, 뉴저지밀알에서 학생시절 봉사를 했던 친구들이 졸업 후 대학에 가서도 밀알을 기억하고 돕고자 만든 모임에서 주최하여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날 밀알 장애인 친구들은 2km 걷기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걷기엔 다소 길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한 숨에 먼지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학생봉사자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은 발걸음이 2km에 다다랐습니다. 2km를 다 걷고 나서도 뭔가 아쉬운 듯이 모두들 더 걷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2km는 좀 짧은 것 같으니 다음에는 좀 더 길게 걸으면 좋겠다고 아우성입니다.


5km 달리는 일반인 참가자들과 밀알 단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50여 명이 달리기에 참가했는데 영애의 1위는 일반인 참가자 염마이클에게 돌아갔습니다. 무려 5km를 23분 16초에 주파했습니다. 호기롭게 달리며 출발했던 참가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속속 달리를 멈추고 걷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필자를 비롯해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이들에게 5km를 멈추지 않고 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5마일 같은 5km이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뛰고 난 뒤에 먹는 밥은 꿀맛이었습니다. 달리고 걸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따사로운 햇살에 그을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온 얼굴에 함박웃음 가득한 걸 보니 벌겋

게 달아오른 얼굴이 마치 환하게 웃는 해님처럼 보였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 지나고 토요 사랑의교실을 한 달에 한번씩 방문하여 봉사하는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해 와 푸른 잔디 위에서 다시 한 번 뛰며 귀한 땀방울을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 슈퍼바이저이자 전문위원으로 섬기며 동시에 이 날 행사를 함께 준비한 김래리는 “처음 계획하고 준비한 행사라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아쉬움은 남지만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더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물품을 후원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후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금년 겨울에 밀알 장애인 친구들과 Milal Seeds의 봉사자 몇 명이 동행하여 플로리다 혹은 LA 등지로 가게 될 추억 만들기 여행에 쓰일 예정입니다. 비록 올해 걷기, 달리기 대회는 끝이 났지만 겨울에 있게 될 여행을 위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후원의 온정이 더해지길 소원해 봅니다.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www.milalseeds.com에 접속하셔서 후원하실 수 있고 혹은 Milal Seeds 회장인 김문영 군에게 (kimm20@tcnj.edu)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글 | 뉴저지밀알 편집부





■ 행복한 시간

북가주밀알의 가족들이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밀알의 봄 소풍은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족 소풍’입니다. 밀알의 모임 시간은 화요일 예배의 시간도 있고, 토요일 사랑의교실도 있기 때문에, 각 가정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달라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소풍은 ‘가족소풍’으로 모입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너무나 화창한 하늘과 따뜻한 햇볕마저 감사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더욱 좋은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나온 밀알 스텝들은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준비하고 예배와 게임 그리고 점심식사를 나눌 장소를 준비하느라 일찍 모였습니다. 바

비큐를 담당하시는 봉사자분들은 우리 친구들 보다 먼저 오셔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는, 뜨거운 하루를 준비하셨고, 음식을 담당하는 봉사자분들은 많은 식구들이 쉽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동선을 확인하며 일사분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작 1시간 전, 10시부터 봉사자 친구들이 도착하여 의자를 나르고, 친구들과 함께 할 게임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친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삼삼오오 도착하였습니다. 매주 보던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나온 푸른 잔디의 널따란 공원 전부를 뛰어 다닐 것처럼 열심히 다니며 웃음을 뿌렸습니다.



다함께 모여 즐거운 찬양과 율동으로 시작한 예배는 김정기 단장님의 설교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그럴마다 피어 오르는 바비큐 연기는 식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테이블에, 잔디밭에 함께 앉아서 마주보는 밀알가족들의 얼굴 가득한 미소는 식사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서로의 아이들이 훌쩍 자란 모습에 놀라고 즐거워 하셨고, 아이들은 봉사자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오후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풍의 하이라이트 ‘보물찾기’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장님의 시작 구호에 모두들 땅을 쳐다보고 흠어졌습니다. 나무를 세심히 살피던 친구 하나는 가지 끝에 걸려있던 빨간색 보물종이를 발견하고 “찾았다!”라고 외치며 첫 신호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나도 찾았다!”하는 즐거운 소리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함께 선물을 나누고, 마음 못지않게 두 손 가득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밀알 가족 소풍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누군가의 섬김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에, 행복의 시간을 위해 섬기는 귀한 분들의 수고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매년 밀알소풍을 후원해 주시고, 한걸음에 달려와 하루를 온전히 섬겨주시는 미주부동산(대표:채수안 전도사님)의 귀한 식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선교침례교회의 봉사자분들과 산호세한국순교자성당의 교우님들은 늘 드러나지 않아 안타까울 정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섬김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밀알 가족소풍은 귀한 성도들의 섬김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루였음을 믿습니다. 🌊

글 | 북가주밀알 편집부



■ 봉사자 소감문

사랑으로 걷는 삶, 밀알을 통해 받은 선물

밀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세상적인 것들에 중점을 두고 살아왔다. 크고 작은 집회에도 여러 번 참석하고, 은혜도 받고, '이제 정말 달라진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매번 해도 쉽게 바뀌지 않던 게 나의 생활이었다. 그때의 나는 학업, 성적, 특히 외모, 연애 등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왔다. 그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았다. 그게 무서워서 죽을힘을 다해서 쫓아갔던 거 같다. 유행하는 것을 나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감, 혹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야지만 인정받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남들을 또 세상을 쫓아가면서 지치고, 슬럼프에 빠져들곤 했었다. 나는 그 원인이 삶의 목표와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밀알에서 찾고 깨달았다.

처음 밀알을 접하게 된 계기는 2013년 박모세군과 함께한 밀알의 밤을 통해서였다. 박모세군의 찬양소리도 정말 마음을 울렸지만, 밀알친구들의 난타와 수화찬양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울렸다. 친구들과 눈을 맞춰가며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격려하며 공연을 하는 봉사자와 친구들의 모습에 무언가에 홀린 듯이 빠져들었다.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바쁘게 뛰어가다가 밀알이란 곳에서 멈춰 그 아름다움을 찾은 것 같았다. 그 아름다움이 계속 마음 한 구석에 남아 눈앞에 아른아른 해서 밀알에 지원하게 됐다.

밀알에 정식 봉사자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하였던 광경에 놀랐다. 밀알친구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어졌다. 그들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예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었다. 그때 정말 무언가에게 탁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걸으며 불평

하다가 마침내 깨달은 느낌이였다. '내가 걷던 길이 어둠 속이었던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구나!'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먹고 왔는데, 오히려 친구들의 모습에서 사랑을 찾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향기를 느끼게 되었다. 정말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할 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같이 뛰며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천사들 같았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잊고 있었던 어쩌면 알지 못하였던 내 삶의 이유와 목표를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으며,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하나님은 하염없이 내가 하나님을 봐주기를 기다리며 내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계셨던 것을 안 순간 마음이 아려왔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나눔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사명들을 깨달은 순간, 난 비로소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부족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정말 늘 감사하다. 친구들과 한 발 한 발 걸음을 맞추고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함을 느끼며 걷는 삶을 밀알을 통하여 선물 받았다.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걸을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

글 | 두시은 (뱅크버밀알, 봉사자)



‘귀신 들렸다’는 것의 의미

어제 은혜한인교회에서 뮤지컬 <Eternal Life>를 보았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그린 뮤지컬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들을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율동, 노래를 통해 직접 보고 들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고 가슴 깊이 묵직한 감동이 물려왔다.

극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훌륭하고 스펙터클했지만 그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귀신들린 여자를 고쳐주시는 씬(scene)이었다. 4막 첫 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은 배우가 귀신들린 여자 역할을 연기하는데 어찌나 실감나게 잘 하던지 글자 그대로 ‘신들린 연기’ 같았다. 복음서에서 읽을 때는 귀신 들린 모습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마음에 와 닿지 않았는데, 그 배우의 혼신을 다 한 연기를 보니 ‘아, 저런 것이 귀신 들린 모습이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 귀신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저 여인에게서 썩 나오거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며 고쳐주시고 기절한 여인을 일으키시며 “네 죄가 사하여졌다. 부모에게 가서 보여주거라.”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는 감동의 전율이 온몸을 휘감아나도 모르게 부르르 떨 정도였다.

흔히 복음서에서 귀신들린 상태로 묘사되는 증상들은 현대 용어로는 정신질환, 지적 장애, 간질 등으로 일종의 심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장애나 질병들은 현대 의학적으로 원인이 규명되었고 어느 정도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귀신들린 것’인지 가능하기 어렵고 일부러 ‘귀신들렸다’는 말 자체를 꺼려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일부 이단이나 근본주의적 교단에서는 ‘귀신들렸다’는 말을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의미 그대로 해석해 안수기도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여 멀쩡한 사람을 때려죽이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크리스천들은 ‘귀신들렸다’는 말을 듣거나 이를 언급한 성경구절을 읽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때가 많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특히 나는 장애를 앓고 있어 장애를 귀신들린 것과 직결시키는 말을 들을 땐 ‘나도 귀신에 씌 건가?’ 하며 몹시 불쾌감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어제 뮤지컬에서 예수님이 귀신들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며 이런 의구심과 거부감, 답답함이 일시에 사라짐을 느꼈다. 바로 귀신들렸다는 것은 육체적 장애, 정신적 질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라는 깨달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지나치게 탐한다면 ‘돈의 귀신’에 들린 것이고 권력에 집착한다면 ‘권력의 귀신’이 든 것이다. 또 우리가 형제자매를 극도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우리에게 ‘증오의 귀신’ ‘질투의 귀신’이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탐욕이나 집착, 증오와 같은 명백한 죄악 말고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에게 쓰인 귀신이다. 인터넷이나

게임, 스마트폰에 너무 몰두해 일상생활이 방해받고 사람들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면 그 게임과 스마트폰 역시 바로 우리를 묶아매고 있는 ‘귀신’인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유혹하고 실케 하는 귀신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귀신들린 상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전근대적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대명천지의 세상, 인간의 이성과 지식,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아니, 그 고도화된 인간의 지식과 이성 때문에 옛날엔 없던 귀신도 지금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옛날 귀신들린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를 만나 그분께 치유 받아야 한다. 위에 적은대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여러 귀신들이 우리를 묶아매어 삶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담대히 외쳐야 한다. 그러면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를 묶아맨 귀신들을 모두 물리쳐주시며, “사랑하는 나의 제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지내거라.” 하시고 우리를 살포시 안아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현시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

글 | 이준수 목사 (말씀&세계 편집장)

뉴욕

자원봉사자 교육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교육이 5월 27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송섭 총무는 장애인 사역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성경적으로 고찰해 주었고 임수영 디렉터는 뉴욕밀알장애인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어떤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약 30명의 봉사자들은 장애인을 돕는 사역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장애사역을 위해 세미나와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지원 서비스 담당자와 면담

지난 6월 1일 뉴욕시 발달장애국 서비스 진행을 위해 박성희 디렉터를 면담하고 뉴욕시 self-direction service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밀알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밀알 프로그램의 개편을 종합적으로 구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뉴욕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 참석

김자송 단장과 임원진은 6월 4일 퀸즈컬리지 르프락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뉴욕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연은 웅장함과 섬세함이 어우러지는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장과 임원진은 뉴욕밀알선교단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연계하는 방법을 구상하며 이회종 단장과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뉴욕교회 방문

6월 7일(수) 김자송 단장과 뉴욕밀알 식구들은 뉴욕교회(담임목사 김성기)를 방문했습니다. 김자송 단장은 수요일예배 시간 중에 뉴욕밀알 사역을 소개하고 사랑의캠프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김단장은 “일반인들은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만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랑의 캠프를 통해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퀸즈성결교회 임직식

6월 11일 퀸즈성결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조승수 담임목사는 뉴욕밀알 사역에 관심이 많 습니다.

새로 장로님을 임직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장애인과 낮은 자를 위한 사역에도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우리교회 방문

매년 사랑의캠프를 지원해주고 있는 뉴욕우리교회(담임목사: 조원태)를 김자송 단장과 임원진이 방문해서 캠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철 전도사님이 간증과 말씀을 인도했고, 단 장님이 올해 캠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캠프 를 통해 그동안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 그리스 도를 만나고 자원봉사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 랑을 체험했습니다.

뉴욕우리교회의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 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 2017년 사랑의캠프에서 장애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올해 밀알의밤 행사에 주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Social Service

5월7일 김민규 치과진료 / 5월24일 유명희 앨러지와 진료 / 5월26일 이순영 치과진료 / 6월8일 김민규 CT 촬영

뉴저지

Happy Mother's Day

어머니 주일을 맞아 밀알동산교회 어르신들 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하신 어르신들이 밀알동산교회에서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 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 섬기겠 습니다.

밀알 친구들이 어머님들께 감사하는 노래와 꽃을 선물하고 '구디백'을 전달하며 따스하게

안아드렸습니다.

밀알&세계 발송 작업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아침이면 오랜만에 밀알 사무실이 시끌벅적해집니다. 약 900여부의 밀알&세계를 여러 지역에 발송하는 작업이 목요일 하루에 진행됩니다.

간지와 헌금봉투를 밀알&세계 첫 페이지에 끼우고 비닐봉투에 넣어 주소 레이블을 붙이고 코드별로 분류하여 커다란 봉투에 담아 우체국 으로 가져가 각 주소로 발송을 합니다.

지루하고 힘든 작업인데도 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수고해주시고 오랫동안 거르지 않고 참여 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감사 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이금자 권사님, 이혜대 권사님, 명윤희 권사님, 황승희 집사님, 강승연 집사님, 김을숙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Youth Choir

강혜미 단장님이 이끄는 Youth Choir가 정기 연주회를 마치고 수익금을 밀알에 전달하고자 지난 5월 13일(토) 사랑의교실을 방문해주셨 습니다.

강혜미 단장님은 해마다 연주회의 기금을 장 애인 선교를 위해 밀알에 헌금해 주시고 있 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날을 맞이하여

화요일미 미술시간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쁜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캔버스에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을 종이테이 프로 만들어 붙인 후에 알록달록 아크릴 물감 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물감이 다 마른 후에 종이테이프를 떼어내면 예쁘게 색칠한 밀그림을 배경으로 한 친구들의 마음이 가득 담긴 말이 나타납니다.

“LOVE”, “엄마” 등등 캔버스의 공간에 제한 이 있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친구들이 어머니께 드렸을 때 친구들 의 어머니들은 캔버스 너머 담긴 친구들의 마 음을 읽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걸 만드는 날이어서 그런지 우리 밀알 친구들의 집중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놀랍도록 컸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수고를 마다하

지 않으시는 한애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5월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친구들이 오랜만에 서점으로, 백화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서점에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친구들이 가장 행복해했던 순간은 빵집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보는 즐거움보다 먹는 즐거움이 더 큰 하루였습니다.

한국전통무용의 밤

한국전통예술원 정혜선 원장님께서 지난 5월 20일(토) 제6회 정기공연 'Korean Dance and Soul'을 마치고 기금을 방글라데시 장애인선교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원장님도 밀알 단원이시고 공연자 중에 3명이나 밀알과 관련이 있는 분이 계셔서 유성종 이사장님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고 밀알 친구 다솔이와 초롱이가 꽃다발을 전해드렸습니다.

밀알동산교회 봄 소풍

봄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왔습니다. 그 러는 중에 밀알동산교회 가족들이 소풍을 갔습니다.

매년마다 모이는 Phelps Park에서 밀알 가족 50여명이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바비큐 파티를 하였습니다. 이날 예배는 자전거로 미 대륙 횡단을 하려고 오신 석진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슈퍼바이저로 봉사하던 티나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자마자 비가 와서 조금 일찍 해산하기는 했지만 즐거운 피크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소문한의원 김준식 원장님, 그리고 고기를 구워주시기 위해 오신 수잔 아빠, 성옥 아빠께 감사드리고 음향을 도와 주신 설영덕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밀알과 함께 합니다

한국에서 석진우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자전거로 미 대륙을 횡단하시려는 계획으로 미국에 오셨습니다.

90일간 미 대륙 횡단을 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라델피아

동부 사랑의캠프가 25번째로 열립니다

25번째 밀알 동부 사랑의캠프가 7월 20일(수)-22일(금)까지 프린스턴에 위치한 <Hyatt Regency Hotel>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금년 캠프는 워싱턴밀알(단장:정택정 목사)이 주최하게 되는데 예년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강사님들이 각각 사랑(아동 캠프), 믿음(성인) 캠프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믿음(성인)캠프 강사로는 한국에서 '삼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성남용 목사님'이 오십니다. 아동캠프에는 3년 연속으로 '김은예 전도사님'(New Spring Church)이 주강사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캠프 25주년을 맞이하여 세밀연 총재이신 '이재서 목사님'과 다수의 이사님들이 자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캠프 장소인 하얏트호텔은 안락하고 모두가 한눈에 자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동부 사랑의캠프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곧 ☎ 215-913-3008로 연락을 주십시오. 참가 회비는 1인당 \$180,(대학생 이상) 아동은 \$160입니다.

제3회 꿈나무 큰잔치 성황리에 마치다(13일)

<꿈나무 큰잔치>가 5월 13일(토)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담임:백운영 목사) 주최로 막을 올렸습니다. 금년 세 번째로 개최된 큰잔치에는 '밀알선교단', 그리고 '서재필 재단 자폐아동 학부모모임'(담임: 세라 임) '영생교회 사랑부', '안디옥교회 사랑부'가 연합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오전부터 밀려든 장애아동들과 교사들, 학부모님들은 접수처에서 나눠주는 명찰을 달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서재필 재단 '최현태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은 후에 밀알선교단을 대표하여 '이재철 단장님'이 인사말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기관 대표들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영생장로교회 담임 백운영 목사님이 식사기도를 한 후 학부모들이 준비한 푸짐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단체촬영을 하고 오후에는 간단한 Activity가 이어졌으며 학부모님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김숙희' 행동치료전문가와 '김지은' 정신의학전문 의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상식 및 선물 증정, 그룹사진을 가진 바 행운권 추첨 결과 영예의 1등은 필라델피아밀알 '채예성'군이 당첨되어 대형 TV를 선물로 받아갔습니다. 당일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학부모님들, 진두지휘를 한 '임세라 실장님' 그밖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믿음의교실 식사봉사(10일)

5월에도 '예수사랑교회' '김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화요 믿음의교실> 장애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밀알선교센터>를 예배처소로 사용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었고 7월 2일(주일) 오후 5시에는 '예수사랑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일상 장로님 소천

영생장로교회에서 충성하시며 헌신하시던 '전일상 장로님'이 지병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델라웨어에 거주하시면서도 공식 예배를 거르신 적이 없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가슴으로 사랑하셨던 장로님은 밀알선교단을 위해 기도하시며 10년 이상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을 발견하셔서 '홀홀' 털고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밀알선교단을 대표하여 단장 이재철 목사님이 Viewing 예배에 참석하여 문상을 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토요 사랑의교실을 찾아주신 교회

6일(토) 필라 사랑의교회(담임:김성준 목사) 팀이 방문하여 정성이 담긴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당일 담임이신 '김성준 목사님'을 비롯하여 '한미영 사모님, 윤석재 집사님, 김상범 집사님 / 최은영 집사님 부부, 허재훈 성도님/임진형 성도님 부부' 그리고 '고감균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배식을 하며, 단장님과 밀알에 관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0일(토)에는 '몽고메리교회'(담임: 최해근 목사) <제1여전도회> 회장: '김혜진 집사님'을 필두로 총무 '정유미 집사님'과 '이영인 집사님'이 방문하셔서 푸짐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귀한 교회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랑의교실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단장 차녀 '인애'양 결혼예식(13일)

단장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딸 '인애'양이 신랑 '이종은'군과 5월 13일(토) 오후 6시, 필라임마누엘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00명의 축하객들이 임마누엘교회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담임 '김태권 목사님'은 시종 위트와 섬세한 감각으로 주례를 이끄셨습니다. 눈길을 끄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특이하게 양가 바깥사돈이 어우러져 축하 '축복의 노래'를 열창했고 반응은 콘서트 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뿐 아니라 '뉴욕, 뉴저지, 워싱턴'에서까지 단장님의 친구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뉴저지밀알 단장 '강원호 목사님 & 강미경 사모님'과 워싱턴밀알 단장 '정택정 목사님 & 정일본 사모님'이 먼 길을 마다않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첼튼햄장로교회 '최정권 목사' 이임(28일)

밀알선교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첼튼햄장로교회' 담임 '최정권 목사님'이 새로운 목회를 위해 이임하셨습니다.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임하여 17년 동안 묵묵히 '목양일념' 하시던 최 목사님은 한국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목사 & 실천신학교수로 청빙을 받아 가시게 된 것입니다. 28일(주일) 이임예배에서 최 목사님은 "17년 동안 첼튼햄교회를 섬길 수 있어 행복했고, 많은 사랑을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이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목사님의 앞날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밀팅(30일)

봄맞이 첫 '밀팅'이 30일(화)에 열렸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아씨마켓 앞에 있는 '맥도날드'로 자리를 옮긴 단원들은 '맥 카페'에서 서로 마주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어서인지 분위기는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밀알 키즈' '기쁨' '주미' '제형'의 재롱을 보며 한걸 더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번 '밀팅'은 새 신부 '김현정' 자매가 호스트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한편, '김현정 자매'는 새 생명을 잉태하여 내년 1월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 주실 마음 따뜻한 분들을 필요합니다. 성인장애인 모임인 '화요 믿음의교실'(매주 화요일)에 장애인들을 라이드해 주실 분, 악기연주와 찬양으로 모임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서 '장애 아동들'을 돌봐주실 분들도 기다립니다. Youth Group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에 필요한 Credit을 발행합니다. 9학년부터 자원봉사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215-913-3008

화요 '믿음의교실'

<매주 화요일 PM. 7:30분-9:30분>

2일: '밀밭성경공부'-'지기님'들의 인도로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일: '영상 감상'-'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애환을 돌아보는 중에 천재적 피아니스트의 재능을 지닌 자폐아동의 영상을 감상하였습니다.

16일: '알고 싶어요!'-'이승학, 김현정' 신혼부부를 초대하여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동기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일: '수화 교실'-이민성 한국 집사님의 인도로 복음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화찬양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일: '밀팅'

토요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AM. 10:00- PM. 4시>

10:30 환영/10:50 찬양과 예배/11:30 성경 읽기, 그림 그리기/12:00 점심식사 /1:00 야외 활동/2:00 영화 감상, 작품 활동/3:00 핸드벨 연습/4:00 정리 및 폐회

6일: 선선해진 날씨 속에서 5월 첫째 주 토요 사랑의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도 감기 걸리거나 아픈 사람 없이 모두 건강하게 모였습니다. 오전 활동으로 성경말씀 이야기 책을 읽어주고 하고 또 스스로 읽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읽기가 끝난 아이들은 비드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소근육 기술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권이 친구 테일러를 데려와서 우리 사랑의교실에 함께 하였는데,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어려

움 없이 우리 친구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스포츠 활동과 핸드벨 연습을 하는 중에 진우의 신디사이저 반주에 맞추어서 연주를 해 보았는데, 핸드벨과 신디사이저의 어우러짐이 음악의 감동을 더해 주었습니다.

13일: 제3회 꿈나무 큰잔치 Special Needs Kids Family Picnic (밀알선교단, 영생장로교회, 서재필상당실, 안디옥교회, 필라연합교회 연합)

20일: 오늘의 설교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그리스도를 약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설교 말씀에 관련된 그림을 컬러링을 하였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드림 송'이라는 영화를 감상하였는데, 가수의 꿈을 가진 아이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곳곳이 열심히 살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 감상 후에는 국민체조로 몸의 유연성을 더하고, 풍선 테니스, 볼링, 야구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신체 움직임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남자 봉사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친구들의 스포츠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잘 도와 줄 수 있었습니다.

27일: Memorial Holiday 휴교

식사봉사: 6일-필라사랑의 교회(김성준 목사 시무), 20일-몽고메리교회(최해근 목사 시무) 제1여전도회(회장:김혜집 집사), 13일-꿈나무 큰잔치. 27일-Memorial Holiday

★ 토요 사랑의교실에 식사를 제공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15-913-3008

단장 사역보고

<설교> 13일(주일): '예수사랑교회'(김곤 목사 시무) / 23일(화): 'Gwynedd 양로원'(디렉터: 수잔나 박)

<방문> 7일(주일): '엘림교회'(백익희 목사 시무) '축도' / 8일(월): 미주동부목회자 체육대회-주최:'뉴욕목사회'-필라 목사회 종합 우승 / 9일(화): 미주동부총신대학원 총회-'뉴저지밀알교회'(우종현 목사 시무)-수석부회장 당선 / 21일(주일): '기쁨의교회'(박성일 목사 시무) / 28일(주일): '첼튼햄장로교회'-담임 '최정권 목사' 이임예배

재정보고 2017년 5월

뉴욕

수입부: \$22,645.65

개인: \$8,220.00 \$10 So Hee Kim / \$20 Kil Do Yoo, Kyung Ja Kang, Jin Kyung Kang / \$50 Albert Bang, Yong Jung Park, Yoon Kyung Choi / \$100 Seop Song, Soon Kyu & Grace Shin / \$200 Jasong Kim & Byongin Choi / \$300 Myung N Kim, Hanwoo Bae / \$500 KI R Chung, Young Min Lee / \$6,000 Seung Jin Park

교회/단체: \$5,933.00 \$20 Sky Cleaners / \$30 KS Nail / \$100 The Siloam Reformed Church, Salon Today, Northern Pharmacy LLC, Woori Church of New York, Myung Sung Church / \$200 The New York Dong Yang First Church / \$300 The Korean Church of Queens, The Grace Daycare Center, 한인동산장로교회 사랑의교실(김민규) / \$400 Savior Presbyterian Church, Hanullim Presbyterian Church, One Heart Church of New York / \$583 화요모임 / \$1,000 Dashing Diva Franchise Corp / \$1,500 Korean Hope Evangelical Church

지정: \$2,040.00 \$1,940 SSI / \$100 사랑의교실

Grant: \$4,000.00 Korean Consulate General.

사랑의캠프 후원금: \$2,452.65 Connecticut Wheat Mission Inc

장소후원: 퀸즈한인교회(이규섭 목사) - 토요사랑의교실(어린이반) / 뉴욕 장로교회 - 토요사랑의교실(성인반&청소년반) / 퀸즈성결교회(조승수 목사) - 화요찬양예배

물품 및 음식후원: 권영준, 더큰집, 토요 Society, 월사모, 광승협, Long Island Mom, 하은희낙원잔치집, 한마음스시팀, 구주원꽃집, 총영사관 부인회, Kyle's Kimchi, Paldo

지출부: \$22,311.34

장애인복지: \$4,225.03 모기지 \$3,300.07 / 물값 \$356.07 / 소득비 \$50 / 비품구입비 \$195 / 정원 관리비 \$163.31 / Time Warner Cable \$160.58

사랑의교실: \$3,815.27 토요 사랑의교실 운영비 \$2,650 / 비품구입비

\$665.27 / 식사&간식비 \$500

선교비: \$2,659.73 직원인건비 \$879.29 / 상회비(2017년 4월) \$360.44 / 밀알&세계 \$820 / 선교비 \$600

전도봉사비: \$2,800.00 활동비 \$800 / 장애인보조 \$1,000 / 경조비 \$200 / 화요모임 \$800.

사무비: \$7,205.98 직원인건비(2명) \$4,046.26 / 전기요금 \$312.25 / 세금 \$1,893.84 / 메일 \$600 / 수리비 \$83.63 / 은행비 \$120 / Retirement Benefit \$150.

차량유지비: \$1,325.33 모기지 \$488.68 / 보험 \$314.20 / 유지비 \$190.45 / EZ pass \$330 / Parking Fee \$2

지정: \$280.00 사랑의교실 \$100 / 사랑의캠프 \$180

전월이월금: \$4,993.99 | 차월이월금: \$5,328.30

밀알의밤 지출: \$10,050.00 사무실 렌트비 \$2,050 / 복지후 \$8,000(오일 New 탱크 설치비용 2차 \$4,200, Permit \$3,800)

뉴저지

수입부: \$18,606.00

개인: \$5,804.00 \$10 Sugene April Kim, 광선희, 김현진, 서진호, 손주형, 이동수, 이충희&이미경, 조소형, 최윤경, 홍은실&이성운 / \$20 David Oh&Anna Oh, Young I Kim, 강동출, 박광민, 서향원, 안영근, 장영빈&장규진 / \$30 Rok Hur, Tori Scott&Gary Scott / \$40 서정순, 이진규&박혜원, 홍성혁 / \$50 김봉례, 엄이든&엄예든, 조복순, 호민선&호연희, 무명 / \$100 Andrew Kim & Kyong Kim, Byungkuk Lee & Heasuk Lee, Hwa Ja Kim, Suk K. Lee, 길민우, 김경문&김재순, 김일영, 박찬효, 박호경&민춘식, 신용호, 양미영, 이기호, 이상욱&이옥진, 이영택, 이윤아, 최선호, 최지희, 한원민 / \$150 박혁재&함지수 / \$200 김호진&김정자, 서정용&서덕희, 장은숙, 황승희 / \$300 이금자, 임현애 / \$734 박지혜 / \$1,000 차영미

교회: \$1,800.00 \$50 산소망교회 / \$100 시나브로교회, 시심나교회, 예수드림교회 / \$150 리버사이드교회 / \$200 뉴저지참된교회, 뉴저지초대교회 / \$300 필그림교회 / \$600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

단체: \$4,042.00 \$40 Young At Heart / \$50 Highwood Auto Service, SOLDAN America Inc / \$100 Sing Out Inc / \$300 노성일 CPA / \$500 ADIO Corrective Chiropractic LLC / \$1,000 Shake-N-Go Fashion, Kwon's Foundation Inc / \$1,002 뉴저지유스오케스트라

지정후원금: \$2,610.00 <방과후학교 \$700: 김준영, 김혜성, 오수잔, 이지은> <사랑의집 \$860: 강건, 무명> <화요모임식사 \$800: 강원호, 김경현 & 홍정진, 이광현> <방글라데시 \$150: 김미나, 박찬효> <장애인후원 \$100: 강건>

사랑의캠프후원 \$4,190.00 \$90 이사라 / \$180 Grace Cho, 길민우 / \$200 박원실 / \$320 KCC School / \$360 뉴저지베델교회, 최재림 / \$2,500 코네티컷말알

장애인 꿈터: \$160.00 \$60 채재동 / \$100 홍호선

지출부: \$34,748.47

사무관리비: \$4,900.08 간사인건비(3명) \$1,950 / 세금공과금 \$519.56 / 보험비 \$471.11 / 복사기리스 \$353.68 / 인쇄비 \$1,150 / 은행경비 \$50 / 전화비&인터넷 \$405.73

선교비: \$14,560.41 단장사례비 \$2,500 / 선교활동 \$402.57 / 선교지원 \$600 / 자동차관리 \$960.84 / 자동차보험 \$593.75 / 방과후학교 \$1,990 / 화요모임 \$1,949.67 / 밀알&세계인쇄 \$904 / 밀알&세계발송 \$405 / 중앙비 \$446 / 본부사랑의교실 \$3,108.58 / 중부사랑의교실 \$700

복지비: \$3,733.89 사랑의집(모기지) \$2,646.09 / 사랑의집운영비 \$354.96 / 유틸리티 \$432.84 / 생활비지원 \$300

꿈터: \$11,554.09 이자(2명) \$2,830 / 변호사 \$500 / TAX \$5,797.72 / 보험 \$2,135.55 / 유틸리티 \$290.82

전월이월금: -\$47,884.58 | 차월이월금: -\$64,927.05

장소후원: Calvary UMC, 참빛교회, 찬양교회

음식후원: 초대교회, 필그림교회, 디미방, 아리랑왕만두, 은하수잔치집, 프렌즈잔치집, The 12 Baskets

필라델피아

수입부: \$7,235.00

이사회비: \$600.00 \$100 이재철, \$200 차형원, \$300 이승학

개인: \$3,805.00 \$10 박산 / \$20 강지수, 고영선, 김윤희, 김진홍, 문재민, 손주환, 신필립&고은별, 유경자, 이경애, 이미경, 이정훈, 임현정, 황인권 / \$50 양찬모, 이중섭, 정현재 \$60 이승학 / \$100 김선미, 이광영, 이기복, 이애린, 정문호 / \$200 이영재 / \$400 이재철 / \$500 이종은&이인애 / \$225 무명 / \$2,500 무명

교회: \$2,630.00 \$100 기쁨의교회, 체리힐평강교회 / \$150 앰블러한인장로교회 / \$200 첼트햄장로교회, 코너스톤장로교회, 필라사랑의교회, 필라한인침례교회 / \$280 성약교회 / \$600 몽고메리교회, 영생장로교회

단체: \$100.00 마디병원

특별지정헌금: \$100.00 예수사랑교회

지출부: \$8,749.41

선교비: \$3,887.26 장학금 \$300 / 본부사역 분담금 \$1,800 / 단장사례비 \$1,200 / 활동비 \$300 / 상회비 \$163 / 자동차 보험비 \$124.26

사무관리비: \$901.79 간사사례 \$600 / 통신비 \$113.34 / 믿음의교실 \$100 / 인터넷 \$77.88 / 폴더구입 \$10.57

건물유지비: \$499.11 모기지 \$300 / 정수기 사용료 \$38.99 / 전기세 \$130.64 / 난방비 \$29.48

사랑의교실: \$1,000.00 사랑의교실 운영비 \$800 / 사랑의교실 교육비 \$200

미디어선교: \$1,061.25 밀알&세계 발송비 \$192.50 / 밀알&세계 인쇄비 \$820 / 우표 \$48.75

복지부: \$1,300.00 사택보조비 \$1,200 / 장애인생활보조 \$100

특별: \$100.00 축하금

전월이월금: \$9,032.45 | 차월이월금: \$7,518.04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18번지 청보빌딩 301호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smilal@milalmission.com

Milal Mission in New York 뉴욕밀알선교단 | www.nymilal.org

42-19 Bell Blvd., 2FL Bayside, NY 11361 / Tel: 718-662-8779 / Fax: 718-445-4887 / Email: nymilal@hotmail.com
Group Home: 142-44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 Tel: 718-445-4442 / Fax: 718-445-4887

화요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토요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3:00	아동반: 퀸즈한인교회 베드로관 청소년반/성인반: 뉴욕장로교회
그룹홈 운영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정 형태의 생활공동체		Group Home
컴퓨터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1:00 ~ 3:00	Group Home
Cooking Class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Group Home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월사모)	매월 첫 주 월요일	오후 6:00 ~ 9:00	
직업재활(교회청소)	성인대상, 교회 환경 미화		

Milal Mission in New Jersey 뉴저지밀알선교단 | www.mijumilal.org

1225 River Rd. Teaneck, NJ 07666 / Tel: 201-530-0355 / Fax: 201-530-0344 / Email: miju92@gmail.com

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30 ~ 9: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분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Calvary UMC	185 W. Madison Ave, Dumont, NJ 07628
중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6:00	찬양교회	15 Ceder Grove Ln, Somerset, NJ 08873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밀알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00 ~ 오후 2:30	밀알 꿈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 www.philamilal.org

423 Derstine Ave. Lansdale, PA 19446 / Tel: 215-913-3008 / Fax: 215-362-3940 / Email: philamilal@hotmail.com

화요모임 <민음의 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9:3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성인 장애인 및 단원들의 모임, 찬양, 예배, 수화 배우기, 수화 찬양, 컴퓨터 배우기, 악기 배우기 등			
사랑의 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발달 장애 아동 Day Care, 찬양, 예배, 교육, Trip 등			
밀알의소리 라디오 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11:30	필라 기독교방송국 AM 1590 Mhz

Milal Mission in Canada 캐나다밀알선교단

1183 Davenport Rd. Toronto, ON, M6H 2G7 / Tel&Fax: 416-491-0002 / milalcanada@hot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4:00	성산장로교회(지하교육관)	1300 Caledonia Rd. North York, ON, M6A 3B9
스텝미팅	매주 토요일	오후 5:00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미주밀알선교단 워싱턴 / 볼티모어 / 버지니아 / 리치몬드 / 샬럿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뉴저지(중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남가주LA / 남가주OC / 텍사스 / 하와이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유럽밀알선교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오스트리아 / 화란 /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한국밀알선교단 강원 / 경기 / 고성.사천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김해 / 거제.통영 / 경남(진해) / 마창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파주 / 양산 / 경기광주

기타밀알선교단 뉴질랜드 / 호주 / 러시아 브리야트 / 인도 / C국(A,B) / 태국 / 네팔 / 이집트 / 카자흐스탄

제25회 밀알 사랑의 캠프

날짜:

2017년 7월20일(목)~22일(토)

장소:

Hyatt Regency Hotel, Princeton
(102 Carnegie Center Dr, Princeton NJ 08540)

주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2)

강사:

믿음캠프(성인) - 성남용 목사 (사당동 삼광교회)

사랑캠프(아동) - 김은예 전도사 (New Spring Church)

캠프 참가비:

성인\$180 (대학생이상)

아동\$160 (5세~12학년)

유아 Free (1-4세)

캠프신청마감:

6월 30일. 인원이 초과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지역별 밀알선교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밀알선교단 240-355-2278

뉴욕밀알선교단 718-662-8779

뉴저지밀알선교단 201-530-0355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215-913-3008

캐나다밀알선교단 416-491-0002

리치몬드밀알지소 703-762-6906

샬럿밀알지소 704-860-1388

시카고밀알선교단 847-877-4202

아틀란타밀알선교단 770-717-0790